

"Kokusai Electric Corporation

고쿠사이 일렉트릭 (6525: TYO)"

세계적인 반도체 증착 장비 기업

Summary

세계 10위권의 반도체 장비 기업

*웨이퍼(Wafer):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실리콘 원판으로, 반도체 제조의 필수 요소.

일본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Kokusai Electric Corporation(고쿠사이 일렉트릭)**이 10월 25일 일본 도쿄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고쿠사이는 반도체 웨이퍼* 증착 장비를 주로 제조하는 세계 10위권의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증착이란 웨이퍼 위에 특정한 물질을 도포하여, 분자 혹은 원자 단위로 일정한 두께의 막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반도체 공정의 필수 과정입니다.

고쿠사이의 공모가는 1,840엔이었으며, 11월 27일 현재가는 3,385엔으로, +84% 증가했습니다. 공모금액은 9.5천억원이었으며, 시가총액은 5조원 수준입니다. 고쿠사이 상장 규모는 2018년 SoftBank가 63조원 규모로 상장한 이후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제조 장비 시장은 2022년 126.6조원 규모였습니다. AI 산업의 확장으로 반도체의 고성능화와 다양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반도체 증착 장비 기업인 고쿠사이도 성장세를 함께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처: Kokusai Electric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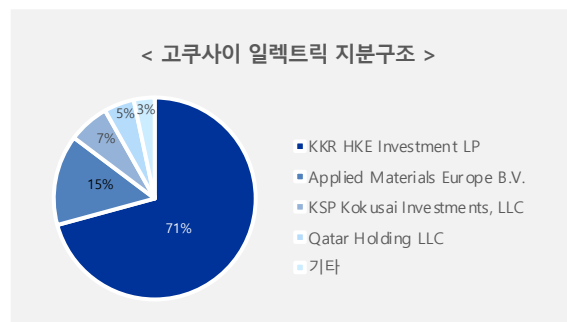
History

오랜 기간 기술을 개발해온 글로벌 기업

고쿠사이 일렉트릭의 모태는 1949년 설립된 **히타치 국제전기**입니다. 1950년대에 반도체 장비 사업을 개시했고, 1970년대에 미국과 독일에 자회사를 설립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지만 이후 일본 반도체 산업의 사양화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2017년, 히타치 국제전기가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면서 고쿠사이 일렉트릭은 히타치에서 분사되어 미국의 사모펀드 KKR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기술 개발과 연구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였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 KKR이 최대주주

미국 글로벌 사모펀드 **KKR**이 최대주주로서 주식의 70.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반도체 장비업체인 AMAT가 14.5%, KSP Kokusai Investment 가 6.6%, 카타르투자청이 4.8%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Business

증착 장비 부문에서 경쟁력 보유

2023년 매출은 **2.5천억엔**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산업의 정체로 반도체 투자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와 관련한 갈등이 심화되면서 산업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고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쿠사이 일렉트릭은 지역별 매출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2023년 매출의 33.8%는 중국, 23%는 한국, 16.9%는 대만, 13.4%는 일본에서 발생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주요 고객으로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고쿠사이는 실리콘 웨이퍼에 막을 형성시키는 **증착 장비 부문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에서 주로 쓰이는 증착 방법인 화학기상증착(CVD) 장비 시장 점유율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과 시장을 경쟁하며 양분하고 있습니다.

JPY(백만)	2022	2023	1Q22	1Q23
매출	245,425	245,721	56,035	32,710
영업이익	70,792	56,067	12,984	3,990
순이익(손실)	51,339	40,305	9,605	2,655

회계연도 3월 기준

출처: Kokusai Electric 투자설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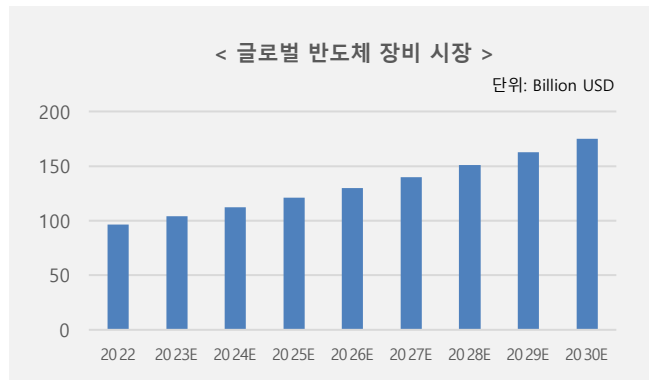
Key Insight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 지속적 성장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

은 2022년 126.6조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로 부진했지만 향후 7.7%의 연평균 성장율로 2030년에는 229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2배 수준입니다. 관련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2023

년 795.1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30년까지 연평균 9.18% 성장하여, 1,346.7조원 규모로 예측됩니다. 다소 느리지만 꾸준한 성장추세를 전망하는 것은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확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AI와 관련 더욱 고도화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독과점적인 시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고쿠사이에게는 유리한 환경으로 이해됩니다. 더욱이 미중간의 갈등으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의 부흥에 대한 전망이 커지고 있어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기업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Grand View Research